

보도 희망일	즉시
문의	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한몽도시협력센터 서울사무소
	임다혜 전화: 02-880-4315, 이메일: dahye72@snu.ac.kr

배포일: 2024.3.8.(금)

서울대, 몽골과학기술대학교에 한몽도시협력센터 개소

몽골 도시계획 인재 육성을 위한 한몽도시협력센터 현지 사무소 개소

- 서울대, 3월 5일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내 현지 사무소 ‘한몽도시협력센터’ 구축
-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 학위과정 운영 및 교육기관 간 협력 활성화
- 70년 전 미국에서 받은 교육원조 사업을 환원, 몽골 도시계획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제공
- 교육 환경 개선과 현장 기술 전수를 통해 도시계획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 기대

□ 서울대학교가 한몽도시협력센터 몽골과학기술대학교 사무소(이하 ‘한몽도시협력센터 몽골사무소’)를 설치하여 도시계획공학과 학위과정 운영 및 교육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몽골 도시계획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했다.

□ 지난 2023년 9월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 석사과정을

시작했으며, 2024년 3월 5일(화) 한몽도시협력센터 몽골사무소를 개소하여 도시계획과 도시공학 분야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기관 간 협력을 한층 활성화하였다.

- 한몽도시협력센터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내 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(KOICA)이 지원하는 ‘몽골과학기술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 설립 및 도시개발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(S-Quad Project)’ 을 수행하고 있다.
- ‘S-Quad Project’ 는 몽골 도시개발 분야의 고등교육과정 설립(도시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신설), 도시개발 분야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, 안전하며, 스마트한 몽골의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.
- 몽골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이후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있다. 특히 수도 울란바타르의 인구 집중은 체계적 계획의 부재와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해 교통혼잡, 환경오염, 주택부족 등 1970년대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이 경험한 도시 문제를 겪고 있다.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몽골 도시개발 분야 전문인력의 부재로 도시개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.
- 몽골 내 대학에는 도시개발 분야 관련 대학원 과정이 전무하며, 도시계획학부가 존재하는 일부 대학에서도 운영이 미비하여, 현재 몽골 대학 자체적으로 도시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다.

- 몽골 도시개발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은 70년 전 ‘미네소타 프로젝트’의 수혜자였던 대한민국이 공여자가 되어 환원한다는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.
- 미국 정부 산하 국제협력처(ICA)는 한국 전쟁 후 대한민국 재건을 목표로 ‘미네소타 프로젝트’라는 교육원조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.
- 미네소타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, 농과대학, 공과대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학문과 기술을 전수했으며, 우리나라 산업 및 대학교육 발전 초기에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.

- S-Quad 사업의 총괄책임자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재영 교수는 “한몽도시협력센터는 서울대와 몽골과기대 간의 도시분야 20년 교류와 협력의 산물이므로 성공을 자신한다. 한몽도시협력센터가 몽골과기대의 도시계획과 도시공학 분야 인력양성과 몽골 도시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역량강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